

여성과 죽음: 베트남 전쟁소설을 중심으로*

권석우
(서울시립대학교)

1. 서론

1982년 초판 발간 이후 1988년 뉴만(John Newman)에 의해 752개의 분량으로 종합적으로 모아진 베트남 전쟁문학 서지 발간은, 총 680쪽 분량으로 1370여 개의 문학 서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1996년에 발간된 개정증보 3판으로 그 결실을 보았다. 물론 그 전에도 몇몇 개의 베트남에 관한 서지목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뉴만의 서지목록은 베트남 문학에 관한 전문 서지 목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베트남 전쟁문학에 관한 논의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미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베트남전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 침략 전쟁이 아직 미해결이고, 또 한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미국의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트남 전쟁문학을 재론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사과와 이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군의 노근리와 같은 한국전에서의 학살을 운운하는 것은 여간 썩스럽지 않다.¹⁾ 과거에 대한 돌아봄과 자성이 없는 민족은 파멸의 도정에 있다.

대개의 경우 베트남 전쟁문학을 가르치는 미국 대학의 수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미국도서상(The National Book Award)의 수상작들인 하인만(Larry Heinemann)

* 이 글은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다.

1)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인종주의: 노근리에서 미라이로」(2007년 상반기 게재 예정) 참조할 것.

의 『파코 이야기』(*Paco's Story*)나 오브라이언(Tim O'Brien)의 『카치아토를 쫓아서』(*Going after Cacciato*)와 같은 작품은 거의 필독서로 등장하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나 하듯이 심경석, 노재호 교수 등에 의해 이 작품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정연선 교수의 『미국 전쟁소설』은 오브라이언의 『카치아토를 쫓아서』를 위시해서, 웹(James Webb)의 『포화의 들판』, 델베키오(John del Vecchio)의 『13 계곡』,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심각한 비판을 하고 있는 터든(Charles Durden)의 『나팔도 없이 북도 없이』 등을 언급하고 있다. 상처받은 미국인 또는 결점이 있으나 그래도 착한 미국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잘 읽혀지고 연구가 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리더러와 버디 공저의 『추악한 미국인』(*Ugly American*)이나 랭(Daniel Lang)의 『전쟁의 사상자들』(*Casualties of War*), 그리고 하스포드(Gustav Hasford)의 『단기 사병들』(*The Short-Timers*)과 같은 작품들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비평가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스트적 소설 양식으로 꼽은 헤어(Michael Herr)의 『통신원 보고』(*Dispatches*)는, 작품이 어느 정도의 예술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난해한 문체와 대중의 주목을 끌만큼의 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세간에는 잘 읽혀지고 있지 않다.

미 라이를 다루고 있는 오브라이언의 『카치아토를 쫓아서』(1978), 『숲 속의 호수에서』(*In the Lake of Woods* 1994), 그리고 『그들의 업보』(*The Things They Carried* 1990)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전쟁 범죄, 특별히 전시 하의 성범죄를 다룬 작품으로는 맥퀸(Donald McQuin)의 『표적들』(*Targets* 1980) 등이 있고, 논픽션으로는 부지기수로 미 라이를 직접 언급한 1969년 12월 5일자 『뉴스위크』의 기사 말고도, 빌튼과 심(Michael Bilton & Kevin Sim)의 공저 『미 라이의 4 시간』(1992), 오브라이언의 『미 라이의 신비』(1994), 올슨(James Olson)의 『미 라이』(1998), 그리고 미군의 잔혹 행위를 병사의 입을 빌어 직접 서술하고 있는 베이커(Mark Baker)의 『베트남』(*Nam* 1981), 베네케(Timothy Beneke)의 『강간하는 남자들』(1982)과 테리(Wallace Terry)의 『선혈들』(*Bloods* 1984), 윌렌슨(Kim Willenson)의 『나쁜 전쟁』(*The Bad War* 1987),

학술적인 보고로는 전쟁 자체에 대한 보고인 맥카시(Mary McCarthy)의 『베트남』(*Vietnam* 1967)과 『하노이』(*Hanoi* 1968), 손탁(Susan Sontag)의 『하노이로의 여행』("Trip to Hanoi" 1968)을 제외하면, 노덴(Eric Norden)의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가혹함』(1971), 사르트르(Jean P. Sartre)의 『인종 학살』(1971) 등 필자가 알고 있는 것 만해도 30여권을 상회한다. 미국 영화로는 특이하게도 『하노이 힐턴 호텔』(*Hanoi Hilton* 1987), 『디어 헌터』(*The Deer Hunter* 1978) 등과 같이 베트남이나 북베트남 군대에 의한 미군에 대한 잔혹행위를 다룬 영화, 본토로 돌아 온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정신적 상흔에 대한 케트윅(John Ketwig)의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다』(…*And A Hard Rain Fell* 1985), 파리(Donald Pfarrer)의 『암흑』(*Neverlight* 1982), 그리고 카푸토(Philip Caputo)의 『전쟁의 소문』(*A Rumor of War* 1977) 이후 2번 째 베트남 소설인 『인디언 영토』(*Indian Country* 1987), 하인만의 『비좁은 병영』 이후 2번 째 작품인 『파코의 이야기』(*Paco's Story* 1987) 등을 위시한 소설은 많지만, 미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이나 군인들에 대한 살상을 그린 소설이나 영화는 랭(Daniel Lang)의 『전쟁의 사상자』(*Casualties of War* 1969)와 이를 영화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기이한 현상은 오히려 베트남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성범죄를 그린 귀화한 미국인 헤이스립(Le Ly Hayslip)의 『전쟁의 아들, 평화의 여성』(*Child of War, Woman of Peace* 1993)과 함께 이부작이 되는 『하늘과 땅』(*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s* 1989)이, 베트남 통일 이후의 무적의 북베트남군에 대한 탈신화화를 그린 여러 베트남 작가의 작품과 함께 회자되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인에 의해 쓰여진 베트남 전쟁 소설, 예를 들어 닌(Bao Ninh)의 『전쟁의 슬픔』(*The Sorrow of War* 1991; 영어번역 1993)은 무적의 북부월남군(North Vietnamese Army)이나 베트남(Viet Cong)이라는 신화를 전복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매스컴에 절찬리 소개되어 한국의 독자에 까지 번역 소개된 바 있고, 공산주의 간부로 파리로 망명한 탕(Truong Nhu Tang)의 『베트남 수상집』(*A Vietcong Memoir*)은 공산당에 대한 환멸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건 부시 시대(1981-89; 1989-93)의 보수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우수한 출판

사인 빈티지(Vintage)에 의해 출판될 수 있었다. 베트남 여성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소설들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남성들 또는 군인들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공산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설들, 예컨대 후영(Duong Thu Huong)의 『눈 먼 자의 천국』(*Paradise of the Blind*)이나 『이름없는 이야기』(*Novel Without a Name*) 등은 이례적으로 펭귄 출판사에 의해 재출간되었다.

문제는 666여개의 소설과, 312여개의 단편소설, 42개의 드라마, 296여개의 시문학 작품들 중에, 베트남 전쟁이 다른 전쟁들, 예컨대 1·2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팔목할 만한 작품을 산출해 내지 못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걸작을 산출해내지 못한 베트남 전쟁문학 가운데 그나마 미국의 대중들에게 간간히 읽혔던 소설 작품들은 어떠한 이유로 미국의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OCLC나 기타 유사 인덱스를 통한 정확한 출판부수와 판매부수의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여기서는 미국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몇몇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작품들에 나타난 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문학적 또는 미학적으로 잘 구성되지 않은 싸구려 페이퍼백이 그래도 읽혀지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그것이 일부 신문의 연재소설과 흡사하게 (여)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을 떠올리면 흔히 여성을 생각하나, 서양의 상상력은 여성을 죽음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사랑이 여성을 매개로 죽음이 되는 이 희유한 사유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정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베트남 전쟁소설을, 그 중에서도 특히 통속적이지만 비평적 관심을 어느 정도 받았던 작품을 분석의 예로 삼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러한 ‘여성과 죽음의 동일화’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철학적, 문학적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과, 둘째로 아직까지 ‘주변문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다수 미국 국민의 대중적 상상력을 들추어내기 위함이며, 유럽에 그 정신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서양문명의 한 지류로서의 미국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대개 대중문학에서 잘 나타나는 음탕한 상상력(pornographic imagination)이

전복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체제 순응적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 계제로 미루지만, 음탕한 상상력을 기조로 하는 대개의 인기 소설들이 단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적에만 영합하는지, 아니면 미군 병사로 대표되는 미국인의 순진함이나 미국의 선량한 베트남 침공이라는 의도를 작가가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포르노에 빚대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 이것은 마치 엄마 역할하기(mothering)나 미인 선발 대회가 페미니즘의 의도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2기, 3기 페미니즘의 논쟁과 흡사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바라는 바는 (여)성에 대한 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이 미국인의 평범한 상상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그리고 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관이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한 방편이 됨을 예증하고 싶을 따름이다. 좀 더 일반적인 ‘죽음과 여성’ 또는 ‘전쟁과 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밝히기로 하고, 어느 정도 포르노그라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몇몇 베트남전쟁 소설들에서 성과 여성, 죽음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2. 성, 여성, 죽음: 『13 계곡』, 『비좁은 병영』, 『시체 세기』, 『대나무 침대』를 중심으로

델베키오는 그의 사실주의적 소설 『13 계곡』(*The Thirteenth Valley* 1982)에서 (여)성과 폭력 또는 죽음의 닳은꼴을 압박한 전투를 기다리며 매복에 임하는 일명 체리(James Vincent Chellini) 병사를 통하여 묘사한 바 있다. 체리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전투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으며,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여자 친구에 대한 성적인 폭력을 통하여 떨치려 하는 듯하다.

체리는 자기의 입을 린다의 성기로 상상하면서 그 안으로 혀를 놀려댔다. 그 잡년. 토끼처럼 그 짓도 잘 할 거야. 언제나 잘 하겠지... 계집년이 필요하다. 작살을 낼 누군가가 필요하다.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당장 하면 굉장하

세계 나올 것 같아 난소를 뚫고 숨구멍까지 작살낼 것 같다. 후후, 전부 없애주지. (505)

일견 보기에는 싸구려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나, 문학적 재현에 익숙한 사람들은 금방 “입”(mouth)과 “질”(vagina),”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남성 성기인 “혀”(tongue)와의 관련성과 “토끼”(rabbit)의 호색함, 그리고 병사인 “체리”의 (여)성적인 연관성을 금방 떠올릴 수 있다. 체리는 전투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으로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를 맞고 있으며, 성적인 이미지들은 곧 바로 폭력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혼합된다. 성은 성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과 죽음을 환기하고 폭력과 죽음은 다시 성을 부추긴다. 죽음과 성은 부메랑이 되어 서로를 반향한다. 생명을 상징하는 “난소들”(ovaries)과 “숨구멍들”(sinuses)에 대한 폭력이 되는 이러한 성은 그러나 죽음 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성을 죽음으로 또 죽음을 성으로 보는 의식은 죽음을 관능적으로 보는 의식에서 합쳐진다. 죽음에서 성을 발견하는 습속은 성(사랑)과 폭력, 또는 죽음을 혼동하는 사고방식으로 쉽게 전환된다. “죽음과 성욕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 둘은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과 더불어 자연이 축성하는 축제의 침예한 순간들일 뿐이다” (보들리아르 「정치경제학과 죽음」 141). 체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만행의 하나인 문학적 토포스가 된 “귀떼기”(severing ears)에 동참하면서 “냉혹하고 무감각한 살인마”(571)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폭력에의 참여는 여성적인 체리를 완벽한 남자, 아니 그것을 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신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게끔 한다. 어휘의 선택은 신성 모독적이며 그 어느 문학적 재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유아론적이며 동성애적이다.

아이구 제기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였고 모든 남자들이 형제들이라면 그것은 예수가 내 형제였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는 신의 아드님이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 또한 신의 아들이고 그리하여 나 자신도 신이라는 것이다. 나는 영원불멸하다. 나는 파괴에 면역이 있다. 나는 인간 신이다. 포탄을 맞고 날라가도 나는 재생할 것이다... 내 친구들이여,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너희들

의 세포들은 나의 세포들이고 내 세포들은 너희들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이 남자 신의 권능과 성령으로 너희들은 재생하여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남자 신이며 내 앞에서 너희들은 감히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않으리라. (550)

“인간 신”(man-God)에서 “남자 신”(man-god → Mangod)으로의 전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체리는 이제 전지전능하고 독존적 신인 “나”(Me) 자신이 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초월은 타자의 죽음에 대한 무시로 이어진다. 결국 소설은 알파 중대 소대장의 이군에 의한 사살, 그리고 중대장 브룩스(Brooks)와 선임하사 이간(Egan)의 죽음을 암시하며 막을 내린다. “전쟁은 인간의 부분이고” “사랑이 전쟁을 일으킨다”(575)는 버클리 대학 철학과 출신의 흑인 중대장 브룩스의 푸념만을 남기며 끝나는 소설에서, 우리는 다만 이 소설의 제목 “제 13계곡”에서의 작전의 실패가 의미하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실패만을 보게 된다. 성은 생명의 창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폭력의 한 수단이 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성들은 보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성 간의 사랑을 죽음으로 보게 되며, 브룩스와 이간의 경우에서처럼 동성애로 빠져들기도 한다.

(여)성을 죽음으로 환원하는 양태를 텔베키오의 소설에서 간략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분석할 소설들은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동양 여성을 죽음으로 파악하는 서양인들의 사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양인의 이분법적 인식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담론상의 공간은 여자의 몸, 그 중에서도 특히 동양 여성의 몸이라는 사실은 굳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론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동양 여성은 여성의 부정적 제곱으로 환산되기에 여성을 더러움과 죽음으로 파악하기에는 안성맞춤인 틀을 빌려준다. 여성을 사랑이 아니라 죽음으로, 또는 사랑을 죽음으로 파악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 소설 중 비교적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면서 비평적 관심을 많이 받은 작품은 하인만의 『비좁은 병영』(*Close Quarters* 1974)이다. 아마도 베트남 전쟁 소설들의 주인공들을 통틀어 “살인자로, 강간자로, 그리고 전적으로 무디고 둔감하여 잔혹한 인간으로 가장 소외된 주인공 중의 하나”(Tal 93)로 등

장하는 도시에 상사(Sgt. Philip Dossier)에 대한 자연주의적 묘사를 통하여, 작가가 “추잡한”(263)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정도로, 이 작품은 살인과 여성, 특히 베트남 여성에 대한 묘사가 충격적이다. 스코틀랜드의 양날 칼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폭탄 이름이기도 한 “클레(이)모어” 페이스(Claymore Face)라고 부르는 베트남의 창녀는 군부대 안에서 몸을 파는 얼굴이 가장 못 생겼지만 바로 그 추악함 때문에 병사들을 열성으로 즐겁게 해주는 여인으로 나온다. 그녀는 남성들이 여자에게 느끼는 성적인 이데올로기 또는 가식을 그대로 반영이나 하듯이 더러워서 더 매혹적으로 비쳐진다. 도시에선 그녀의 일상적인 몸 팔기가 끝난 어느 하루 클레모어에게 총부리를 들어대고 주위에 들어 선 모든 병사들에게 옷을 완전히 벗은 채 펠라티오(fellatio)를 하도록 강요당한다.

나는 지퍼를 열어 내 친밀한 거시기인 ‘죽음의 눈’(Deadeye)을 꺼내 나의 눈으로 그것을 응시한 채 내 손으로 동작을 해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으나 질질거렸고 얼굴을 아래로 내리면서 마치 내가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바보천치처럼 어깨를 흠칫했다...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정액을 내뿜고 난 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갑차의 출구 주위로 6명이 매달려 있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옮겨 다녔고... 다시 데드아이 차례가 왔을 때는 그녀의 입술과 턱과 목덜미는 침과 정액으로 흥건했다. 나는 다시 딱딱해졌고 다른 놈들도 다시 딱딱해졌으므로 다시 한 번씩 더 돌라고 말했다.

클레이모어 페이스가 이 총 저 총을 바삐 옮겨 다니면서 다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우리는 빙 둘러앉아있었다. (247)

남자의 성기(cock)가 노리쇠로서 총(gun)의 일부만인 아니라 성기 그 자체로도 서술되어 있어, 남자가 성기 자체로 점유되어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장갑차의 출구 주위로 “매달려 있는” 6명의 병사들은 늘어진 남성성을 말한다. 폭력과 죽음만으로 가득 찬 작전이 끝나고 난 후 더욱 더 펼쳐지고 자행되는 이러한 종류의 성을 통한 폭력에로의 탈출은 그러나 행위의 주체들을 더욱 더 비인간화할 뿐이다. 간간히 비치는 여성혐오증과 전쟁 예찬

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베트남에서 자행된 미군들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 언급할 이스트레이크(William Eastlake)가 여성 또는 그것이 상징하는 사랑을 죽음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는 서사를 보일 때, 하인만은 그러나 고통을 주는 것과 성적인 충만함, 죽이는 것과 성행위와의 연관에 대해 지속적인 언급을 하면서도 그러한 연관성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병사들의 마음속에, 간혹 일반인들의 상상력이나 어휘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죽이는 것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별 차이 없이 나타나는 서은 사실이다(111). 그러나 도시에의 꿈속에서 죽음은 “낄낄거리는” 웃음을 지닌 “마녀... 또는 어떤 부드러운 악(녀)”(113)로 나타나며, 이 악녀는 비록 명확하게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클레이모어 페이스일는지 모른다. 클레이모어 말고도 다른 여자 주인공들인 일본인 수지(Susie)와 미국인 제니(Jenny) 또한 “낄낄거리는” 죽음의 웃음을 지닌다는 사실은(112, 247, 304), 작가가 죽음과 여성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여성을 천사의 다른 이름인 창녀로 파악하는 서양의 해묵은 상상력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겠다.

(소)총은 물론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죽음이 여성으로 쉽게 인식되듯이, 전장에서 “죽음의 수단”이 되는 총 또한, 문화적으로는 여성으로도 인식된다는 것은 서양문화에 내재된 역설로 가장한 눈속임이다. 제목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풍기는 하스포드(Gusford Hasford)의 소설 『단기 사병들』(*The Short-Timers* 1979)의 주인공 조커(Joker)는 그들의 소총을 여성의 “성기”(17)라고 표현하며 훈육하는 거하임 상사(Sgt. Gerheim)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게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갖게 되는 유일한 여자이다. 너희들이 분홍색 팬티 속으로 마리 제인의 썩은 사타구니(Mary Jane Rottencrotch -- 마약의 이름이기도 함)를 용두질하던 시절들은 끝나 버렸다. 너희들은 쇠와 나무로 만들어진 이 무기와 짝 지워져 있고 이것에 신명을 바쳐야 한다. (17)

훈련을 받던 성 정체성이 모호한 파일(Gomer Pyle)이 그가 여성으로 명명한 소총 샤를린(Charlene)을 입에 물고 마치 “스스로 블로우 잡”(Fuchs 127)을 하듯이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은, 전쟁과 죽음을 여성으로 파악하는 서양 상상력의 편견 또는 빈곤을 드러낼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기는 대개 남성의 상징으로 표상되어 왔으나, 갑자기 죽음을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무기의 대명사인 총마저도 여성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마치 여성을 유혹했던 뱀으로 형상화되는 사탄이 원래 남성적인 성질을 잃어버리고 여성적인 것으로 탈바꿈되는 것과 유사하다. 남성의 성기 모습을 닮은 뱀은 시원의 남성적 형상을 잃어버리고 항상 여성과 동반되어 자주 나타나 여성의 일부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극히 외설적이어서 더욱 더 사실일 것 같은 1974년 이래로 쪽 수 많은 판을 거듭해 온 통속 베스트셀러 『비좁은 병영』에서 죽음을 표상하는 것은, 『단기 사병들』을 위시한 많은 전쟁소설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성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는 남성 (성기)로 국한된다. 남성 성기는 베트남 여성 클레모어에게 있어서는 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클레이모어 페이스는 이 총 저 총을 바빠 옮겨 다니면서 다시 펠라티오로 한 바퀴를 돌았다”(247). 작품의 전반부에서 도시에가 도쿄의 휴식과 재충전(R & R)중 한 호텔 바에서 일본 여성 수지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 또한 폭력적인 성과 죽음을 환기하는 성이다.

어색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여자는 돈으로 샀으니 실수 하지 말자. 돈은 현금으로 매일 아침마다 주자. 그렇지만 나는 “어 여봐. 잡년 한 번 할래? 니랑 나랑 이층으로 올라가자. 내 소중한 데드아이(Deadie)가 너의 풋풋한 똥구멍을 찢고 싶단 말이야. 화끈하게 죽여주지!”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176)

데드아이는 도시에를 칭하는 별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42, 181, 245), 전체적으로 보아 남성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다(176, 184, 247).

클레모어 페이스는 단 돈 5달러면 무엇이든지 했다. 정상이던지, 항문이던지, 유방이던지, 항문을 훑어주는 것이던지, 빨아주는 것이던지, 팔꿈치로 하는 것이 낫 나가게 하면 그것으로 까지 뭐든지 해 주었다. 언젠가 레이번은 미국인들은 남성 성기를 자지로 부르지도 않고 바지춤의 눈이 하나인 쥐새끼라 부른다는 사실을 클레모어에게 말한 적이 있다. (184)

죽은 눈이라는 뜻의 데드아이²⁾는 외면상으로 보아 “한쪽 눈을” 가진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아도 무방하다.²⁾ 죽음을 상징하며 때로는 죽음 자체가 되는 남성의 성행위는 따라서 죽음을 가져다주는 폭력 이외 다름 아니다. “나는 하고 싶다… 딱 한 번만에 너의 골통을 날려 보내주마”(182). 필자는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아름다운 한국말인 “자지”와 “보지”로 일부러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골통을 날려 보내기”나 “똥구멍을 찢고 싶다”는 표현이 더욱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도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파괴와 살육뿐 그에게는 어떠한 치유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암울한 것일까? “모든 도시를, 모든 문명을, 모든 인종들을 파괴할 마음”(310)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폭격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베트남과 그것을 대표했던 클레모어에게 저질렀던 죽음의 행위를 참회하지 않는 한, 죽음은 클레모어가 아니라 데드아이일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 그의 백인 아내인 제니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또 해도 잠을 잘 수 없”(303)는 이른바 전쟁증후군(PTSD)에 시달리게 된다.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숫자보다 본토로 돌아와 자살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전투로 촉발되는 죽음의 장면과 성적인 환상이 교차되는 하인만의 두 번째 전쟁소설 『파코 이야기』(*Paco's Story* 1986)의 주인공인 파코가 여전히 전쟁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성적인 폭력에 매료되면서도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인물인 데드아이의 변신이자 후신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폭력과

2) ‘한쪽 눈을 가진 자’라는 뜻의 아랍어의 남성 성기 이름과 오이디푸스의 눈과 성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철규 71-72 참조

성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소치이다.

휘젯(William T. Huggett)의 『시체 세기』(*Body Count* 1973) 또한 동서양의 이분법에 가세된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들여다보는 좋은 예이다. 호킨스 중위(Lt. Chris Hawkins)는 프린스턴 대학원생으로 해병에 입대한 엘리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제 13계곡』의 주인공 브룩스 중위(Lt. Brooks)처럼 명문대학 엘리트 출신임을 밝히는 것은, 베트남에 할 수 없이 참전한 흑인 윌슨(Wilson)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치이프(Chief)를 위시한 소수 집단뿐만 아니라, 예비조로 본토에 남아있어도 좋은 소위 상류 집단에서도 동양, 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여전히 아니 더욱 더 은밀하게 그리고 소수 집단에서는 볼 수 없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한 유곽의 여주인으로부터 여자를 소개받는 주인공은 그들의 무례함에 경멸을 보내면서도, 그가 생각하기에는 “유방이 없을”(176), 그리고 “성기가 가로로 비뚤어진” “몸덩어리 뿐인”(177) “피부를 송연케 하는 더러운 장소”(175)의 여자를 사는데 성공한다. 여주인으로부터 그의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여자를 고르라는 말을 듣고 호킨스는 모멸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다만 빠져나가고만 싶었다. 일평생 이렇게 전시되고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 빌어먹을 인간들은 예의라고는 눈꼽도 없단 말인가”(174)? 그의 이러한 깨끗함과 더러움, 문명과 야망의 이분법은 일이 끝난 후 바로 목전에서 뒷물을 하는 베트남 여인에 대한 묘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얼마나 천하게 보이는지. 저게 동양 여성이라 그런지 아니면 다만 신분의 차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군. 본토에서 교양 있는 여자들이 저런 짓을 한다고 그려보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겠지. 두 가지 상이한 모습의 어색함이 그를 웃기게 만들었다. (179)

누가 누구를 더럽고 야만스럽다고 하는 것일까? “한 종족의 여성은 너무도 순결하고 한 종족의 여성은 난잡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특수성”(Keller 22)

을 이야기하는 정신대의 폭력을 상기하게 만든다. 2 달러를 더 달라고 하는 여인의 청을 뿌리치고 나가면서 만약 돈을 더 주지 않았다고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베트남인들이 너스레를 떠들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돈을 침대 위로 집어 던지고 나가는 호킨스의 모습에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젓지 않는”(178) 이 베트남의 처자가 왜 출산 직후에도 몸을 팔아야 되는 가에 대한 생각은 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 그에게 여자는 단지 “수류탄을 던지듯이” 돈을 던져 버어나야 할 “더러운”(180) 죽음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속에 즉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뭘 상관이야, 젠장. 그는 입을 쳐박고 뜨뜻하고 달착지근한 우유를 맛보기로 했다.

이 여자 젓이 나오네! 젓탱이가 큰 이유가 있었구만. 분명 애새끼를 낳은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이렇게 젓이 축 늘어진 것이겠지. 젠장할. (177)

동양과 여성에 대한 동일화, 동양여성에 대한 이러한 폄하와 무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고대 동양의 신비”(the ancient mystery of the Orient 340)를 여성의 몸에서 찾으려는 상류층 출신 호킨스의 우월의식과 야만성은, 이 작품의 다른 주인공들인 인디언 치이프와 흑인 월슨의 도쿄 휴양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월슨은 흑인의 ‘강력한 성’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 여인 수지(Suzie)와, 인디언 치이프는 사유(Sayu)와 다양한 형태의 섹스뿐인 휴양에 분주하다. 그러나 월슨과 같이 목욕을 하자는 치이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일본의 여인 사유는 “일본여인들은 동양여인들과 다르고” “흑인 병사들은 더럽고 추잡하다”(330)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얼핏 보면 제포즈(Susan Jeffords)의 주장대로 월슨과 치이프의 ‘남성연합’(male bonding) 속에서 인종적인 차이가 무시되고 있고 오로지 그들이 여성과의 다른 점만이 부각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65-66).

격렬한 성행위를 치룬 후 수면을 취하는 수지에게 다가와 “동양의 신비”를 밝히기 위하여 수지의 다리를 쳐들어 올리는 치이프와 “동양의 여성 성기는

가로가 아니다”(340)는 언급을 하고 있는 윌슨에게 제포즈가 미국의 초기 여성 페미니스트 학자로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다. 사실 도쿄의 섹스를 위한 질편한 마지막 밤은 그들이 도쿄 행 비행기를 탄 직후 이미 예견되었다. “도쿄 행 1400편에 올라 탄 165명의 해병들의 마음속에서 스투어디스 3명은 그렇게 빨리 옷이 벗겨지고, 알몸이 보이고, 강간당해 본 적이 없었다”(313-4).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일본여인들은 동양여인들과 다르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들에게 여자들은 베트남 여자들이건, 일본여자들이건 욕정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서양 여자들에 관한 한 그들의 태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의 여자들에게 행하는 과도한 행동을 그들은 서양 여자들에게는 마음속에서만 상상할 뿐이다. 그들이 수송기 선상에서 떠올리는 꼭 죽어야 하는 인물인 “나비 부인”은 동양의 여인들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제포즈는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동양의 여자들은 서양의 여자들보다 과도하게 더럽게 등장하며, 이러한 동양여인에 대한 창녀화는 그들이 갖고 있는 동양에 대한 신비화와 더불어 기묘한 정복의 식을 부추기는 두 개의 전략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서양의 해묵은 마돈나 신드롬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폭력과 죽음을 (여)성으로 착각하는 사유 행태는 동양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양여인이건 서양여인이건 “여성 앞에서 남자들은 여전히 그들 간의 힘의 불평등속에서도 힘을 교환하고 각자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다”(Sedgwick 87). 성을 죽음으로 파악하는 앞서 언급한 『13 계곡』의 주제는 사실은 이스트레이크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연구되지 않는 베트남 전쟁소설 초기작 『대나무 침대』(*The Bamboo Bed* 1969)에서 이미 천착된 바 있다. 유대인 대학살을 빗대어 베트남 학살과 전쟁을 성토했고 있는 이 소설은 하인만과 휘겟의 다소 몽환적이지만 사실주의적인 소설과는 달리, 성과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환상적이고 미학적인 성찰을 보여 준다. 특별히 작품의 후반부는 성과 거의 동일시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원인 또는 죽음 자체임을 신성 모독적으로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 기독교적인 개뿔”이고, 위선이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은 나치 독일인들이 화덕에 사람들을 구울 때 독일에서 횡행하던 기독교의 개똥이다. 그리고 지금 사랑은 미군들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태워 죽일 때 미국 전역에서 날뛰고 있다. 세상은 지독한 거짓말이라고 클랜시는 생각했다. 이 지독한 거짓말. 그렇다면 진실이란 무엇일까? 진실은 당신이다. 뒤우도네 여사. (307)

그 진실이, 프랑스 말로 “신이 주신 것”이라는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뒤우도네(Dieudonné) 여사가 상징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죽음은 신의 선물이다. 작품이 시작되면 뒤우도네 여사는 작품의 마지막을 먼저 이야기라도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죽음이라는 모티프로 작품을 끝내는 19세기의 대부분의 소설들과는 상이한 양상을 띠면서 죽음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러나 죽음이 너무 진부해지고 우리와 가까워졌다는 현대 작가들, 특히 사랑과 죽음을 다루는 전쟁작가들의 위기감의 소산일는지 모른다. 겉보기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애인 클랜시 대위(Captain Clancy)의 죽음을 따르는 서양문학의 큰 주제중의 하나인 ‘리베스토드’(Liebestod)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 같으나 리베스토드의 비장함이나 아름다움은 찾기가 어렵다.

뒤우도네 여사는 늘 그러하듯이 새벽 6시 그녀의 땅 속 빌라에서 완전히 벗은 채로 일어나 단과 라디오를 틀었고 라오스에서 전하는 소식으로 클랜시 대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여전히 별거벗은 채로 보석함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자그마하지만 까맣고 무거운 물체를 꺼내어 그녀의 머리에 대고 아담한 불란서 풍의 머리를 날려 버렸다. 아니야. 죽지 않았을꺼야. (7)

전장에서 꽃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섹스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위 플롯은 베트남 상공 위를 날고 있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대나무 침대라 명명되는 구조 헬기(39) 안에서 클랜시 대위를 찾아 헤매는 나이트브릿지 대위가 간호 장교와 섹스를 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나잇브릿지 대위와 그 아름다운 간호 중위는 섹스의 허망함을 즐기며 공간의 허무 속 어딘가 저 위에 있다. 아니야. 사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섹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거야. 태국의 휴식과 재충전(R & R)에서는 진정한 대나무 침대를 느낄 수 있기에 사랑을 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군. 태국에서의 휴식과 재충전이라. 휴식과 재충전 휴가에는 오로지 거듭되는 섹스만 있을 뿐, 휴식과 재충전이야 말로 찾아볼 수 없었다. (42)

표면적으로는 섹스와 사랑을 구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사랑은 최고조의 섹스에 다름 아니다. 전쟁이라는 지복의 주이상스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괴하게도 “죽도록 섹스를 하는”(37) 것일 뿐, 이와는 다른 어떠한 다른 해결책은 주어지지 않았다. 전쟁자체가 전쟁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망각한 채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가능성을 이끌어 주었던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반복적이고 환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상투적인 사랑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 우리는 베트남에서 모든 사람들을 작살내었지.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사랑? 자꾸만 그것을 헤집어 이야기하지 말자.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 (220)

사랑의 힘은 베트남의 정글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죽음만이 위대한 해결책”(182)이 될 뿐이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이 되기도 하는 성(性) 또는 섹스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전쟁의 황홀경에 대한 빈약한 대안”(225)이며, 여성으로 대표되는 구원의 여신이 방사하는 섹스와 사랑은 남성이라는 동물이 필요로 하는 파괴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전쟁의 한 대안으로서 “추잡한 성”을 들먹이는 애플핑거 박사(Dr. Applefinger)의 주장은,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연상 작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과 이것이 산출해 내는 폭력이 인류의 원죄가 됨을 암시한다.

여자를 후리는 것은 남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도움은 된다. 그것이 없다면 상황은 더욱 더 나빠졌겠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여자를 먹는 것은 전쟁의 황홀감을 대신하는 보잘 것 없는 대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란 원숭이하고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죽인다. 살인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범주의 밖에서 사회가 유일하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잡한 성을 추천하자. 사람을 죽이는 것 보다 성숙한 인격을 이루는 것 보다 더 황홀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한다. 전쟁을 대신할 무언가를 우리는 꼭 찾아야만 한다. (225)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영원히 여성적인”(Goethe 『파우스트』) 것으로 느껴졌던 구원의 사랑은, 작가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환기하는 섹스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나 죽음 자체가 치료와 구원의 해결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333). 1968년을 기준으로 지나간 3421년 동안 인류가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이 고작 286년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전쟁은 있을 것이라”(333)는 자조어린 체념 속에서 인류는 죽음의 화신이 될 뿐이다.

대나무 침대로 명명되는 구조 헬기는 사랑일 수도 죽음일 수도 있다. 대나무 침대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파국과 구원이 공존하는 인류의 과학과 문명을 표상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과학문명 자체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인류의 “문명... 그 자체가 전쟁들의 원인”이고 언제나 “사회는 전쟁을 선택한다”(229)는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단상은 비판적이지도 않다.

대나무 침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최상이다. 그리고 그들은 최상을 알고 있었다. 대나무 침대는 아시아의 언어이자 아시아를 느끼는 것이다. 대나무 침대는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구해지는 하늘이다. 땅 위의 정글 속의 대나무 침대는 삶이 끝나는 곳이다. 대나무 침대는 삶의 찬가이며 또한 멋진 놈들이 죽어 가는 장소이다. (42)

죽음으로 시작한 소설은 죽음으로 끝난다. 삶의 원칙을 표상하기도 하는 뒤우도네 부인에게서 죽음만을 보기로 하는 클랜시 대위의 죽음 지향적 사고

방식에서 반추해보아야 할 것은, 그리고 “죽음 -- 그녀는 우리의 대위님의 신부였다”(350)라는 이 소설의 피날레에서 뒤집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나, 여성을 죽음으로 보는 서양문화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그 폐해이다. 죽음은 뒤우도네 부인의 정부인 클랜시 대위이기도 하지만(334) 또한 “죽음은 그녀 자신이 되었다”(333). 간헐적으로 암시되었지만 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는, 여성은 사랑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랑이 없다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112),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예”(113), 작품은 죽음으로 이르는, 아니 죽음 자체가 되는 여성의 사랑을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여성을 죽음으로 파악하는 서양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베트남 전쟁소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여성을 사랑이 아니라 죽음으로 파악하는 서양인들의 습속은 비단 베트남 전쟁소설에서뿐만 아니라 포우(Edgar A. Poe)의 「베레니스」(“Berenicé”), 「모렐라」(“Morella”), 「리지아」(“Ligeia”), 「어셔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을 위시한 단편소설에서도 형상화 된 바 있다. 아름다운 여인 베레니스는 심지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끔찍한 이빨”(161), 즉 바기나 덴타타로 체유되기 까지 한다. 여성을 죽음으로 보는 서양의 유연한 전통은 헤밍웨이나 포크너를 위시한 현대미국문학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의 여주인공 Brett Ashley이 남성을 거세하는 서시(Circe)로 나온다거나, 『노인과 바다』의 상어가 바기나 덴타타를 상정한다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프란시스 매코머의 짧고 행복한 생애』(“The Short Happy Life of Francis Macomber”)의 남편을 저격하는 미모의 돈 없는 여주인공 마곳(Margot)은 틀림없이 바기나 덴타타의 후손이며, 「킬리만자로의 눈들」(“The Snows of Kilimanjaro”)의 돈 많은 헬렌(Helen) 또한, 비록 작가 헤밍웨이가 모든 탓을 헬렌에게 돌리는 해리(Harry)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주고 있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 있어서 팜프 파

탈로 해석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 포크너의 1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단편소설 가운데 하나인 「벌어진 틈」(“Crevasse”)은 여성을 “씩는 냄새가 나는” “쩍 벌어진” “검은 구멍” 또는 “죽음과 분해”의 “쇠락의 창자들”(471)로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성은 악과 유사한 존재이며”(99) 어머니는 어두운 “동굴 그 자체”(『소리와 분노』 156)이고 여성은 소 같이 우스꽝스러운 포유동물로 나타나기도 하며(『내 누워 죽을 때』 156; 『성단』 133), 옥수수대(corn cob)로 강탈당하는 매음굴 『성단』(Sanctuary)의 여주인공 템플(Temple Drake)처럼 주인공 포피이(Popeye)의 사악한 누이이자 레드(Red)를 죽음으로 이끄는 여성 드라클라이기도 하다. 여성은 발정난 고양이처럼 “활처럼 휘어져” “마치 죽어가는 생선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252) 그녀의 이름처럼 “드라클라의 성전”에서 죽음을 방사한다. 그의 유명한 단편인 「에밀리에게 장미를」에서 에밀리(Emily)가 사랑하여 죽이는 양키 호머(Homer Barron)와 『8월의 빛』의 혼혈아 흑인 조(Joe Christmas) 또한 여성의 희생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미국문학의 큰 주제 중의 하나인 여성으로부터의 도피 또는 자연으로의 도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자연은 남성들이 정복해야 할 혼란함과 파괴, 그리고 죽음으로 상징되는 여성성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회피 또는 정복이 남성성을 발현시키는 그 고유한 무엇도 아니다. 여성적인 ‘가정적 문화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domestic culture)하여 남성적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쿠퍼(James F. Cooper) 류의 이데올로기는 따라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눈 속임수를 갖고 있다. 일견 자연이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어 “남성적 문화-여성적 자연”이라는 유럽의 젠더 이분법을 뒤집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연에 대한 정복을 남성성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 유럽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³⁾ 자연은 여성적이고 문화는 남성

3) 본질주의-구성주의 논쟁은 양자 공히 젠더에 대한 고착적 관념을 드러내는 한 지표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바다와 그리고 바다의 괴물들은 여성적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 딕』(Moby-Dick)에서는 광포한 바다는 남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하늘은 여성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베어울프』에서 바다를 포함한 자연이 여성적인 것으로 표현된다면 로렌스(D. H. Lawrence) 문학에서 그것은 남성적으로 표현된다.

적이라는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주의는 파괴나 죽음을 여성적으로, 건설과 창조를 남성적으로 보는 시각과 다름이 없다. 죽음으로 표상되는 여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간다는 미국문학에 자주 나타나는 발상 또는 여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전쟁을 한다는 핑계 또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자연이 성이 없듯이 죽음 또한 성이 없다. 죽음은 죽음일 뿐이다.

여성을 자연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파악하는 서양의 습속이 동양의 여성에게도 문화적으로 전유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동양을 여성으로 파악하는 논리와 맞물려 동양=여성=죽음의 등식을 가능케 하며, 이는 본론에서 다룬 『13계곡』, 『대나무 침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인만의 『비좁은 병영』, 또는 휘갓의 『시체 세기』에 보다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의 소설에서 (동양) 여성은 대개 “창녀”(con gai)가 아닌 여성은 없다. 말로(André Malraux)의 『황도』(1930)와 그린(Graham Greene)의 『조용한 미국인』에서도 인도차이나는 죽음을 상징하며, 여성 또한 죽음을 의미한다. 앞서 분석한 소설들 말고도 일본 작가 가이코(Tekeshi Kaiko)의 『검은 태양 속으로』(Into a Black Sun), 통일 이후의 베트남 작가인 닌의 『전쟁의 슬픔』, 그리고 국내 작가인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 또한 여성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여성을 육체, 더러움, 죽음으로 생각하기는 여성으로부터 도망가기, 또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성 죽이기와 같은 문화적 병리현상을 산출해 내기도 한다. 육체와 성을 죽음과 연관시켜 사고하는 한, 여성을, 특별히 동양 여성을 죽음으로 파악하는 행태들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는 한에 있어서 파괴와 폭력을 일삼는 서양문화가 죽음 지향적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비극적이다.

참고문헌

-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서울: 한길사, 2004.
 장 보들리אר, 『섹스의 황도』, 정연복 역, 김 진석 편, 서울: 숲, 1993.

- Bataille, Georges. "Concerning the Accounts Given by the Residents of Hiroshima."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Ed. Cathy Caruth.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5. 221-35.
- Del Vecchio, John M. *The Thirteenth Valley*. 1982. NY: Bantam, 1983.
- Eastlake, William. *The Bamboo Bed*. NY: Simon and Schuster, 1969.
- Faulkner, William. *The Sound and the Fury*. 1929. NY: Penguin, 1981.
- _____, *As I Lay Dying*. 1930. NY: Vintage, 1964.
- _____, *Sanctuary*. 1931. NY: Signet, 1987.
- _____, "Crevasse." *Collected Stories*. NY: Random House, 1950.
- Fuchs, Cynthia. "'Vietnam and Sexual Violence': The Movie." *America Rediscovered: Critical Essays on Literature and Film of the Vietnam War*. Eds. Owen W. Gilman Jr. and Lorrie Smith. NY: Garland, 1990.
- Hasford, Gustav. *The Short-Timers*. 1979. NY: Bantam, 1983.
- Heinemann, Larry. *Close Quarters*. 1974. NY: Warner Books, 1983.
- Huggett, William Turner. *Body Count*. 1973. NY: Dell, 1983.
- Jeffords, Susan. *The Remasculinization of America: Gender and Vietnam War*. Bloomington, Indiana UP, 1989.
- Keller, Nora Okja. *Comfort Woman*. NY: Penguin, 1997.
- Newman, John. *Bibliography of Imaginative Works about American Fighting in Vietnam*. 2nd ed. NY: Scarecrow P, 1988; 3rd ed. NY: Rowman & Littlefield, 1996.
- Poe, Edgar A. *The Unabridged Edgar Allan Poe*. Phila.: Running Press, 1983.
- Sedgwick, Eve K.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Y: Columbia UP, 1985.
- Tal, Kalí. "The Mind at War: Images of Women in Vietnam Novels by Combat Veterans." *Contemporary Literature* 31.1 p.76-96, Spring 1990.
- Webb, James. *Fields of Fi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8.

[Abstract]

Women and Death in Vietnam War Novels

Seok-woo Kwon
(University of Seoul)

According to John Newman's *Bibliography of Imaginative Works about American Fighting in Vietnam*, there are 1370 entries up to 1996 which deal with the theme of Vietnam War in literature. Among various themes such as war and gender/race and ethnicity/class, this study makes an issue of the contiguity between femininity and death in Vietnam War novels written by Americans to investigate one of the bedrocks upon which the western civilization is founded. Female figures, especially Oriental females are seen as an emblem of death in the novels such as *The Thirteenth Valley*, *Close Quarters*, *Body Count*, and *Bamboo Bed*.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is kind of death obsessive mode of thinking is deeply embedded in Western mentality and argued that its habitual mode needs to be changed.

keywords: Femininity, Death, Vietnam War Novels, *The Thirteenth Valley*, *Close Quarters*, *Body Count*, *Bamboo Bed*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